

도시의 발전

가. 도시의 발전과정

도시의 생성은 메소포타미아, 인더스에서 시작된 도시문명과 아시아, 이집트의 자연 공생문명에서 시작되었다. 고대도시는 4대 문명을 중심으로 농업기술의 진보와 촌락의 형성, 도로의 건설 등이 발전하였으며, 이후 도시국가가 형성되며 산업혁명, 산업화, 도시화로 인해 인구가 집중되고 통신과 교통이 발달되었다.

하지만, 인구밀집과 열악한 작업환경, 도시의 슬럼화 등 산업화로 인한 도시문제, 환경적 문제가 발생하였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도시계획으로 자연적 환경도시인 영국의 전원도시(Garden City)가 나타났다.

17C ~ 20C에는 도시 및 이론의 발전이 다양하게 나타났다. E. Howard에 의하여 제안된 전원도시는 영국에서 시작되었으며, 도시와 농촌간의 장점만을 통합한 저밀도 경관도시로 이는 도시의 인구과밀로 인해 야기되는 다양한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한 도시상 모델이었다.

이러한 도시론의 탄생은 다양한 도시이론과 도시상을 창출하는 계기가 되었다. 미국 제이콥스의 생활도시, 프랑스 르코르비제의 빛나는 도시, 영국 헤론의 위킹시티, 영국 초크의 플러그인시티, 독일 슈트트가르트에의 에코폴리스, 맥하그의 에코로지컬 플래닝 등 다양한 도시론이 나타났다. 근래 1900년대에는 에그리폴리스, 에코폴리스, 에코시티, 에코도시로 나타났다. 이후 스마트 도시, 저탄소도시, 바이오시티 등 미래상 도시들이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어바니즘에 따라 도시기반시설을 구축하였다. 어바니즘